



치자나무

과명 꼭두서니과
 학명 *Gardenia jasminoides*
 영명 Cape Jasmine
 일명 くちなし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경에 중국에서 도입하여 남부지방의 민가에 약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코자 식재한 나무이다. 때로는 발가 독에 집단으로 식재하여 열매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그 수요가 줄어들어 남부지방 가정 정원에 한두 그루 식재하여 순백의 꽃과 아름다운 향기를 즐기기 위해 식재하기도 한다.

치자나무는 높이 4m 까지 자라는 상록활엽의 키가

작은 나무로 밑에서부터 많은 줄기와 가지를 내어 큰 포기를 만들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대만, 중국에 분포한다. 내한성이 약하여 남부지방 외에는 야외 월동이 불가능하며 토심이 깊고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며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개화결실이 잘되는데 직사광선보다는 반그늘 진 곳이 더 좋다. 각종 공해에도 강하며 이식력이 좋은 수종이다.

잎은 마주나며 긴 타원형이고 길이 3~15cm로서 잎자루가 짧으며 잎 양면에 털은 없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양성으로 6월에 백색으로 피고 6~7개의 꽃잎을 지니며 꽃에 달콤하고 짙은 향기가 있어 매력을 느끼게 한다. 열매는 길이 3.5cm로서 긴 타원형이며 세로로 6~7개의 능각이 있고 9월에 황홍색으로 익으며 황금색 염료를 갖는다.

번식은 주로 겹꽃 종류에 많이 이용되며 6~7월경 꽃이 진 후 새가지가 다소 굳은 다음에 한다. 온실이 있으면 봄과 가을에도 할 수 있다. 삽수는 정아 부분을 4~5마디씩 잘라 밑쪽 2마디의 잎을 따고 나머지 잎은 반 정도 잘라버린 후 물에 담가 1~2시간 물을 올린다. 발근 부위에 발근제를 바른 후, 진흙 경단을 붙여 여름에는 굵은 모래에 꽂고, 봄 가을에는 가는 모래에 꽂는다. 다량으로 번식할 때는 삼목상을 모래와 황토를 섞어 만들어 그대로 꽂으면 된다. 꽂은 후에는 충분히 관수하고 반그늘에서 관리한다. 활착률은 비교적 좋은 편이며 노지삽(露地挿)일 때는 다음 해 봄까지 그 자리에 두고 얇은 액비를 주어 비배하였다가 4월에 넓혀 심는다.

치자나무 중 열매가 달리는 것은 홀겹의 꽃이 피며, 원예종에는 겹꽃이 있어 더욱 화려하지만 열매는 맺지 않는다.

남부지방에서는 가정, 학교, 공원, 병원 등에 정원수로 심었으며 잔디밭에 큰 포기를 만들어서 단식하면 꽃필 때 향기가 집 전체를 감싸주며 현관 앞에 심어 방문객을 즐겁게 하는 것도 그 집의 특색을 살릴수 있다.

치자열매는 소독(消毒)과 해독제(解毒劑)로 쓰이고 염료로는 물론 식품 염료로도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사용이 줄어들었다. 꽃은 향기로운 화전이나 생식도 하며 데쳐서 켈리드에도 쓸수 있다.

정원수로서 수요는 대단치 않으나 분화초로서 수요는 꽃 뿐만 아니라 관엽식물로도 비중이 커서 인기 품목에 속한 만큼 생장이 빠른 남부 지방에서는 양산하면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

